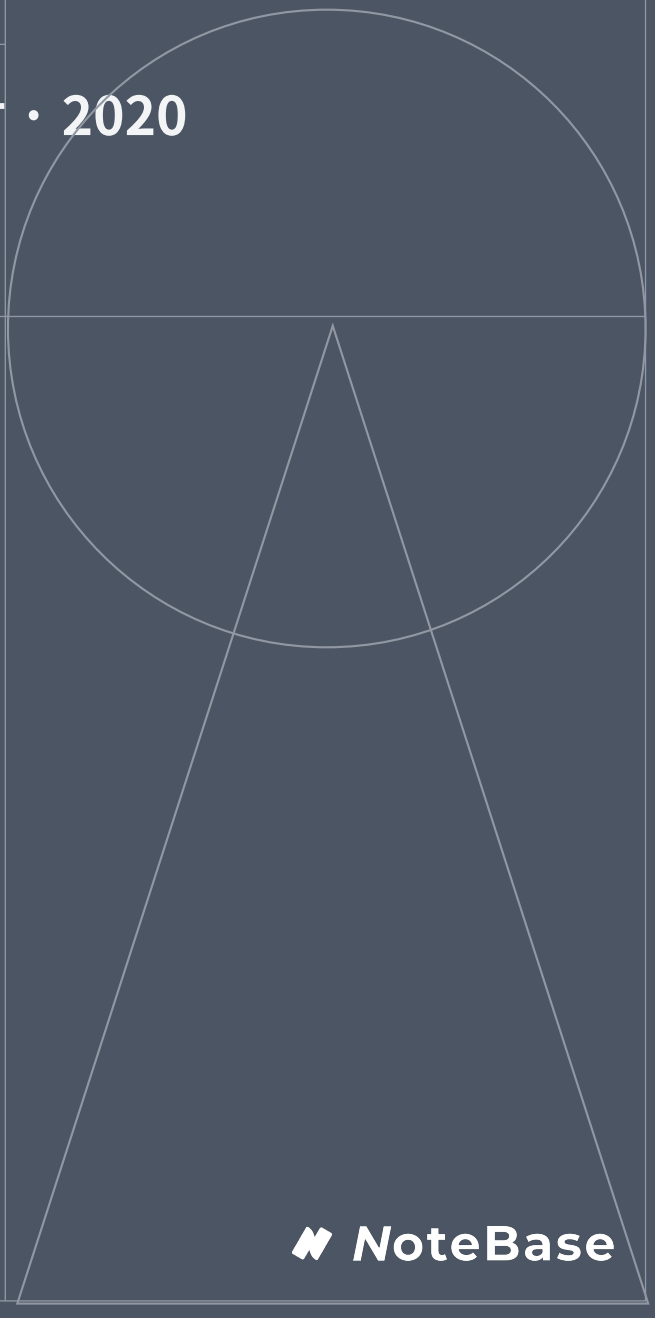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0

공무원/국가직/9급 · 회계학 · 2020

문 1. (주)한국은 20×1년 1월 1일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건물을 ₩100,000,000(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에 구입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20×1년 말 해당 건물의 공정가치가 ₩80,000,000일 경우 (주)한국이 인식해야 할 평가손실은?

① 기타포괄손실 ₩10,000,000

② 당기손실 ₩10,000,000

③ 기타포괄손실 ₩20,000,000

④ 당기손실 ₩20,00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면 **감가상각하지 않고**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취득금액보다 기말 공정가치가 20,000,000원 낮으므로 **당기손실 20,000,000원**을 인식한다.

계산 과정

적용 모형: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물은 투자부동산이다. 이 건물은 취득 시 원가 100,000,000원으로 인식하고, 이후에는 문제에서 선택한 공정가치모형에 따라 기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평가 전 장부금액: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원, 정액법이라는 조건으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지 않으며, 20×1년 말 공정가치 평가 직전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인 100,000,000원이다.

평가손실 계산: 기말 공정가치가 평가 전 장부금액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이 평가손실이다. 평가손실 = 평가 전 장부금액 − 기말 공정가치 = 100,000,000원 − 80,000,000원 = 20,000,000원이다. 이 손실을 반영하면 건물의 장부금액은 기말 공정가치인 80,000,000원이 된다.

손실의 인식: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에서는 공정가치 변동으로 생긴 손익을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20,000,000원은 기타포괄손실이 아니라 당기손실이며, ④의 '당기손실 ₩20,000,000'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자는?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

② 주주 및 채권자

③ 공인회계사

④ 금융감독원

정답 1번

①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다. 회계담당 임원이 없으면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이 그 대신 대표이사와 함께 책임을 진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주주·채권자가 아니라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③

공인회계사라는 자격만으로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작성 책임자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NoteBase

④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에게 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임원(회계담당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은 20×1년 한 해 동안 영업사업부 건물의 일상적인 수선 및 유지를 위해 ₩5,300을 지출하였다. 이 중 ₩3,000은 도색비용이고 ₩2,300은 소모품 교체 비용이다. 또한, 해당 건물의 승강기 설치에 ₩6,400을 지출하였으며 새로운 비품을 ₩9,300에 구입하였다. 위의 거래 중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출의 총액은?

① ₩11,700

② ₩15,700

③ ₩18,000

④ ₩21,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일상적인 수선·유지비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건물의 기능을 늘리는 승강기 설치비**와 **새 비품 취득원가**만 자산으로 기록하므로, 자산으로 처리할 지출은 15,700원이다.

계산 과정

20×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록할 수 있는 지출을 구하려면, 지출을 당기의 수선·유지를 위한 비용과 미래 기간에도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의 취득·기능 확충 원가로 구분한다.

일상적인 수선·유지비: 도색비 3,000원과 소모품 교체비 2,300원은 건물의 **기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다. 따라서 합계 5,300원은 수익적 지출로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며, 자산으로 기록할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

승강기 설치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하면 건물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 미래 기간에도 효익을 제공한다. 따라서 6,400원은 **건물의 기능을 확충하는 자본적 지출**로서 자산 원가에 포함한다.

새로운 비품 구입비: 9,300원은 수선에 사용한 소모품 교체비와 달리, 여러 기간에 걸쳐 사용할 **새로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이므로 비품으로 자산 처리한다.

자산으로 기록할 지출의 총액은 승강기 설치비와 비품 구입비의 합계인 6,400 + 9,300 = 15,700원이다. 이는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중앙부처 A의 다음 재정운영표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한 재정운영 결과는?

프로그램 수익	₩40,000	프로그램 총원가	₩300,000	비배분 수익	₩20,000
비배분 비용	₩30,000	비교환 수익	₩24,000	관리 운영비	₩60,000

① (−) ₩306,000
② (+) ₩306,000
③ (−) ₩330,000
④ (+) ₩330,000

정답 2번

공통 해설

재정운영결과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고, 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을 더한 뒤 비배분수익·비교환수익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천원 단위로 계산하면
300 − 40 + 60 + 30 − 20 − 24 = 306이므로 재정운영결과는 (+)306,000원이다.

NoteBase

문 5. (주)한국의 수정전시산표의 각 계정잔액이 다음과 같다. 매출총이익이 ₩2,000일 때, 총매입액은?

매출관련 자료		매입관련 자료	
총매출	₩11,000	총매입	?
매출에누리	₩1,000	매입에누리	₩800
매출운임	₩300	매입운임	₩200
재고관련 자료			
기초재고	₩600		
기말재고	₩500		

① ₩8,500
② ₩8,600
③ ₩8,700
④ ₩8,8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총이익에서 역산한 매출원가는 8,000원이고, 재고 증감을 반영한 순매입액은 7,900원이다. 순매입액에 **매입에누리를 더하고 매입운임을 빼면** 총매입액은 8,5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순매출액: 총매출 11,000원에서 매출에누리 1,000원을 차감하면 순매출액은 11,000 − 1,000 = 10,000원이다. 매출운임 300원은 상품을 판매하여 배송하는 데 든 **판매비**이므로 순매출액이나 매출원가 계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2. 매출원가: 매출총이익은 순매출액에서 판매한 상품의 원가인 매출원가를 뺀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0,000 − 2,000 = 8,000원이다.

3. 순매입액: 기초재고에 당기 순매입액을 더한 금액 중 기말에 남아 있는 재고를 제외한 것이 매출원가이다. 따라서 매출원가에서 기초재고를 빼고 기말재고를 더하면 순매입액을 구할 수 있다. 순매입액은 8,000 − 600 + 500 = 7,900원이다.

4. 총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를 차감하고, 상품 취득에 든 **매입운임을 가산**한 금액이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총매입액은 7,900 + 800 − 200 = 8,5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주어진 내용 외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① 전부원가계산에서 판매량이 일정하다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영업이익은 증가한다.

② 전부원가계산은 외부보고 목적보다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③ 변동원가계산에서는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④ 변동원가계산에서 생산량의 증감은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②는 두 원가계산의 주된 용도를 바꾸어 설명했다. 전부원가계산은 **외부보고**에, 변동원가계산은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유용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판매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고정제조간접원가 중 **재고자산에 남아 다음 기간으로 이연되는 금액**이 증가한다. 그만큼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 줄어 영업이익이 증가한다.

② X: 전부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모두 제품원가에 포함하므로 **외부보고 목적**에 적합하다. 단기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는 원가를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구분하는 **변동원가계산**이 유용하다. 변동원가계산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뺀 공헌이익을 보여 주며, 판매 증가 없이 생산량만 늘려 이익을 높이는 현상을 방지하여 영업성과를 파악하기 쉽다.

③ O: 변동원가계산은 변동제조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제품이나 재고자산에 배부하지 않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전액 처리**한다.

④ O: 문제의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전제에는 판매량과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및 고정원가 총액이 일정하다는 조건이 포함된다.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도 미판매 제품의 변동제조원가는 재고자산으로 남고,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과 관계없이 당기비용으로 전액 처리된다. 따라서 **판매량이 일정하면 생산량의 증감만으로 이익이 달라지지 않는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당기 직접재료 매입액과 당기에 발생한 직접노무원가는?

재고자산

	기초재고	기말재고
직접재료	₩18,000	₩13,000
재공품	₩25,000	₩20,000
기본원가	₩85,000	
가공원가	₩75,000	
당기제품제조원가	₩130,000	
매출원가	₩120,000	

① 직접재료 매입액: ₩45,000, 직접노무원가: ₩35,000

② 직접재료 매입액: ₩45,000, 직접노무원가: ₩40,000

③ 직접재료 매입액: ₩50,000, 직접노무원가: ₩35,000

④ 직접재료 매입액: ₩50,000, 직접노무원가: ₩4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재공품 재고를 조정한 당기총제조원가는 125,000원이며, 여기서 가공원가를 빼면 직접재료 사용액은 50,000원이다. 직접재료 재고가 5,000원 감소했으므로 **매입액은 사용액보다 적은 45,000원**이고, 기본원가에서 직접재료 사용액을 뺀 **직접노무원가는 35,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당기총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130,000원은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이다. 여기에는 기초재공품 원가가 포함되고 기말재공품 원가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당기에 새로 투입한 제조원가**를 구하려면 기초재공품 25,000원을 빼고 기말재공품 20,000원을 더한다. 당기총제조원가는 130,000 − 25,000 + 20,000 = 125,000원이다.

2. 직접재료 사용액: 당기총제조원가는 직접재료원가·직접노무원가·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고, 가공원가는 직접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이다. 따라서 **당기총제조원가에서 가공원가를 빼면** 생산에 사용한 직접재료원가가 남는다. 직접재료 사용액은 125,000 − 75,000 = 50,000원이다.

3. 직접재료 매입액: 기초 직접재료에 당기 매입액을 더한 금액 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기말재고가 된다. 따라서 매입액은 사용액에 기말재고를 더하고 기초재고를 빼서 구한다. 직접재료 매입액은 50,000 + 13,000 − 18,000 = 45,000원이다. 이는 **기초재고 중 5,000원도 당기 생산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용액보다 매입액이 적다는 뜻이다.

4. 직접노무원가: **기본원가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의 합계**이다. 여기서 직접재료원가는 매입액이 아니라 생산에 사용한 50,000원이므로, 직접노무원가는 85,000 − 50,000 = 35,000원이다.

직접재료 매입액 45,000원과 직접노무원가 35,000원의 조합은 ①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8. 단일제품 A를 제조하는 (주)한국의 제품생산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율이 20%일 경우, 세후 순이익 ₩120,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수량은? (단, 제품 A의 단위당 공헌이익은 동일하다)

총판매량	200개
총공헌이익	₩200,000
총고정원가	₩150,000

① 120개

② 150개

③ 270개

④ 300개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세후 순이익 120,000원을 얻으려면 **세전이익 150,000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고정원가를 더한 300,000원을 단위당 공헌이익 1,000원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판매수량은 300개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데 쓰인다. 자료의 총판매량 200개와 총공헌이익 200,000원을 이용하면 단위당 공헌이익은 $\frac{200,000}{200} = 1,000$ 원/개이다. 문제에서 **단위당 공헌이익이 동일**하다고 했으므로 목표 판매수량에도 이 값을 적용한다.

2. 목표 세전이익: 법인세율이 20%이므로 세후 순이익은 세전이익의 80%이다. 따라서 세후 순이익 120,000원을 남기려면 세전이익이 $\frac{120,000}{1-0.2} = 150,000$원이어야 한다.

3. 필요한 총공헌이익: 총공헌이익에서 총고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이 세전이익이다. 따라서 목표 이익을 얻으려면 **고정원가와 목표 세전이익을 모두 충당**해야 하므로 필요한 총공헌이익은 150,000 + 150,000 = 300,000원이다.

4. 목표 판매수량: 필요한 총공헌이익을 제품 한 개가 제공하는 공헌이익으로 나누면 판매수량이 된다. 따라서 판매수량은 $\frac{300,000}{1,000} = 300$개이다.

필요한 판매수량은 300개로, ④의 300개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9. (주)한국은 정상원가계산을 적용하여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금액을 재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조정 전 기말잔액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전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정 전 기말잔액
재공품	₩500,000
제품	₩300,000
매출원가	₩1,200,000
합계	₩2,000,000

○ 실제발생 제조간접비 ₩1,000,000
○ 예정배부된 제조간접비 ₩1,100,000
○ 재공품과 제품의 기초재고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① 조정 전 기말잔액에 제조간접원가가 과대배부되었다.

②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금액 중 기말 재공품에 ₩25,000이 조정된다.

③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기말 제품은 ₩315,000이다.

④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 후 매출원가 ₩60,000이 감소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제품에 배분되는 과대배부액 15,000원은 제품원가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조정 후 기말 제품은 315,000원이 아니라 **285,000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이 문제에서는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를 각 계정의 조정 전 기말잔액 비율로 배분한다. 배분기준 합계는 재공품 500,000원 + 제품 300,000원 + 매출원가 1,200,000원 = 2,000,000원이다.

① O: 예정배부된 제조간접원가 1,100,000원이 실제발생액 1,000,000원보다 크므로, 1,100,000 − 1,000,000 = 100,000원이 **과대배부**되었다. 실제보다 원가를 많이 반영한 상태이므로 재공품·제품·매출원가에서 배분된 금액을 각각 차감한다.

② O: 재공품에 배분할 과대배부액은 $100{,}000 \cdot \frac{500{,}000}{2{,}000{,}000} = 25{,}000$원이다. 재공품의 조정 전 잔액이 배분기준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배분하며, **25,000원을 차감**하여 조정 후 잔액은 500,000 − 25,000 = 475,000원이 된다.

③ X: 제품에 배분할 과대배부액은 $100{,}000 \cdot \frac{300{,}000}{2{,}000{,}000} = 15{,}000$원이다. 과대배부액을 제품원가에서 차감하므로 조정 후 기말 제품은 300,000 − 15,000 = **285,000원**이다. 선지의 315,000원은 차감해야 할 금액을 더한 값이다.

④ O: 매출원가에 배분할 과대배부액은 $100{,}000 \cdot \frac{1{,}200{,}000}{2{,}000{,}000} = 60{,}000$원이다. 이를 차감하므로 매출원가는 **60,000원 감소**하며, 조정 후 금액은 1,200,000 − 60,000 = 1,140,000원이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주)민국에 대한 다음의 실사 결과를 이용하여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
만약, 이 중 75%를 ₩2,000에 취득하고 영업권 ₩500을 인식한다면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 자산의 장부가치: ₩4,000 (공정가치 ?)
◯ 부채의 장부가치: ₩2,500 (공정가치 ₩2,500)
◯ 자본금: ₩500 ◯ 자본잉여금: ₩300 ◯ 이익잉여금: ₩700

① ₩3,500
② ₩4,000
③ ₩4,500
④ ₩5,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취득대가에서 영업권을 뺀 1,500원은 **순자산 공정가치의 75%**이다. 이를 전체 지분 기준으로 환산한 2,000원에 부채 공정가치 2,500원을 더하면 자산 공정가치는 4,500원이다.

계산 과정

1.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공정가치: 이 문제에서 영업권은 취득대가가 취득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취득대가에서 영업권을 빼면 **75% 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 공정가치**가 된다. 2,000 − 500 = 1,500원이다.

2. 전체 순자산 공정가치: 1,500원은 전체의 75%이므로 취득 지분율로 나누어 100% 기준의 금액을 구한다. (1,500)/(0.75)=2,000원이다. 이는 (주)민국 전체의 자산 공정가치에서 부채 공정가치를 뺀 금액이다.

3. 자산 공정가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순자산 공정가치에 부채 공정가치를 더한다. 2,000 + 2,500 = 4,500원이다. 이 계산은 **장부가치가 아닌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자산 장부가치 4,000원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민국의 자산 공정가치는 4,5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1.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②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재분류조정을 반영한 후에 당기손익의 항목을 표시한다.

③ 수익과 비용의 어느 항목도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 또는 주석에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④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할 때에는 관련 조정을 반영한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보고서에 표시한다. ②의 '당기손익의 항목'은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으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매출원가·판매비·관리비처럼 비용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묶는다. 이때 각 기능에 포함된 감가상각비나 급여 등의 총액을 알기 어려우므로,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이 포함된다.

② X: 재분류조정은 당기 또는 과거 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에 당기손익으로 옮길 때 이루어지는 조정이다. 같은 금액이 총포괄손익에 중복 반영되지 않도록 기타포괄손익에서도 관련 금액을 조정한다. 재분류조정을 주석에 표시하는 경우 보고서에는 조정 후의 **기타포괄손익 항목**을 표시하므로, 선지의 '당기손익의 항목'을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으로 고쳐야 한다.

③ O: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 빈도가 낮거나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특별손익 항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이 금지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뿐 아니라 주석에도 적용된다. 다만 중요한 수익·비용의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특별손익으로 분류하는 것과 구별된다.

④ O: 유형자산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자본 내에서 항목을 옮기는 것**이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잉여금을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체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대체 자체로 자본총액도 변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2. 재무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 수입인지 ₩50,000
◯ 송금수표 ₩50,000
◯ 선일자수표 ₩50,000
◯ 자기앞수표 ₩100,000
◯ 타인발행수표 ₩100,000
◯ 당좌개설보증금 ₩100,000
◯ 취득 당시 만기 120일인 양도성예금증서 ₩100,000

① ₩400,000
② ₩350,000
③ ₩300,000
④ ₩2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현금에 포함되는 것은 **송금수표·자기앞수표·타인발행수표**이며, 합계는 250,000원이다. 양도성예금증서는 취득 당시 만기가 120일이므로 현금성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계산 과정

현금에는 통화와 요구불예금뿐 아니라 즉시 현금으로 바꾸어 지급에 쓸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도 포함된다. 현금성자산은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가치변동 위험이 경미한 단기투자자산으로, 일반적으로 **취득일부터 만기까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포함할 금액: 송금수표 50,000원, 자기앞수표 100,000원, 타인발행수표 100,000원은 통화대용증권으로서 현금에 포함한다. 이 세 항목의 합계가 현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다.

수입인지 50,000원: 세금·수수료 등의 납부에 사용하는 증표이므로 일반적인 지급수단인 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선일자수표 50,000원: 장래의 날짜가 적힌 수표로서, 회계상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 합계에서 제외한다.

당좌개설보증금 100,000원: 당좌거래를 위해 은행에 맡긴 보증금이다. 자유롭게 인출하여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당좌예금과 구별되므로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한다.

양도성예금증서 100,000원: **취득 당시 만기가 120일**이므로 3개월 이내라는 현금성자산의 만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현금성자산으로 더할 금액은 없다.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 + 100,000 + 100,000 = 250,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다음은 도·소매 기업인 (주)한국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이다. 정상적 원인에 의한 재고감모손실은 매출원가로,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보고하는 경우 (주)한국이 당기에 인식해야 할 매출원가는? (단, 재고감모손실의 30%는 비정상적 원인, 나머지는 정상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었다)
기초상품재고액 ₩100,000
당기상품매입액 ₩900,000
기말상품재고액(장부금액) ₩220,000
기말상품재고액(실사금액) ₩200,000

① ₩766,000

② ₩786,000

③ ₩794,000

④ ₩80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재고감모손실 중 **정상적 감모손실만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처리한다. 감모손실을 반영하기 전 상품 매출원가 780,000원에 정상적 감모손실 14,000원을 더하면 당기 매출원가는 794,000원이다.

계산 과정

1. 감모손실 반영 전 상품 매출원가: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을 더한 판매가능상품원가는 100,000 + 900,000 = 1,000,000원이다. 여기서 **기말재고의 장부금액** 220,000원을 빼면 감모손실을 반영하기 전 상품 매출원가는 1,000,000 − 220,000 = 780,000원이다.

2. 재고감모손실: 장부에는 남아 있지만 실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품의 원가이다. 기말재고의 장부금액과 실사금액의 차이이므로 220,000 − 200,000 = 20,000원이다.

3. 감모손실의 구분: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전체의 30%이므로 20,000 × 30% = 6,000원이다.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정상적 감모손실은 20,000 × 70% = 14,000원이다. 문제의 조건에 따라 **정상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감모손실은 기타비용으로 별도 처리한다.

4. 당기 매출원가: 감모손실 반영 전 상품 매출원가에 정상적 감모손실을 더하므로 780,000 + 14,000 = 794,000원이다. 이는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4. (주)한국의 다음 기말조정사항에 대한 수정분개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증가 또는 감소)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당기 7월 1일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연 6% 이자율)에 가입하고 현금 ₩1,000,000을 입금하였으나, 결산일까지 이자 수령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자관련 회계처리는 하지 않았다.

② 비품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 ₩30,000을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

③ 당기 11월 1일에 소모품을 ₩50,000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자산으로 인식하였다. 기말 결산일에 미사용 소모품 ₩20,000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당기 4월 1일부터 회사 건물을 (주)민국에게 1년간 임대하고, 1개월에 ₩10,000씩 1년분 임대료 ₩120,000을 현금으로 받아 전액 수익으로 기록하였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아직 받지 않은 이자라도 당기에 발생했다면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현금 수령일이 아니라 이자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발생주의에서는 현금의 수입·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당기에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각 수정분개가 이미 기록된 수익이나 비용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증감을 비교한다.

① 증가: 7월 1일에 가입한 연 6% 정기예금은 이자 수령일이 오지 않았더라도 결산일까지 이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차변에 미수수익, 대변에 이자수익으로 기록한다. **누락된 당기 이자수익을 추가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② 감소: 비품을 당기에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상각비 30,000원을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30,000원, 대변에 감가상각누계액 30,000원을 기록한다. **당기 비용이 30,000원 증가**하므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③ 감소: 11월 1일에 구입한 소모품 50,000원을 전액 자산으로 기록했으므로, 기말에 남은 20,000원을 제외한 사용액 50,000 − 20,000 = 30,000원을 비용으로 대체한다. 차변에 소모품비 30,000원, 대변에 소모품 30,000원을 기록한다. **사용한 소모품만 비용으로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30,000원 감소한다.

④ 감소: 4월 1일부터 1년분으로 받은 임대료 120,000원을 모두 수익으로 기록했지만, 결산일 이후의 임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 수익이 아니다. 그 금액을 차변에 임대료수익, 대변에 선수수익으로 기록하여 **아직 발생하지 않은 수익을 부채로 대체**한다. 이미 기록한 임대료수익이 줄어들므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①은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고, ②·③·④는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키므로 영향의 방향이 다른 것은 ①이다.

NoteBase

문 15. 20×1년 초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는 회계기록상 계정잔액의 오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위의 수정전시산표상의 오류와 다음 결산조정사항을 반영한 후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후시산표상 차변 합계는? (단, (주)한국은 저가법 적용 시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

계정과목	차변	대변
현금	₩200	
매출	₩300	
매출채권	₩500	
건물	₩1,000	
미지급금		₩150
재고자산	₩200	
선급보험료		₩50
자본금		₩1,000
소모품	₩30	
선수수익	₩50	
미수수익		₩10
차입금		₩500
매입채무	₩50	
임차비용	₩30	
급여	₩30	
합계	₩2,390	₩1,710

◯ 20×1년 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치는 ₩10으로 확인되었다.

◯ 차입금의 차입일은 20×1년 7월 1일, 연 이자율 4%, 만기 1년이며, 이자는 차입원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한다.

① ₩1,850

② ₩2,050

③ ₩2,250

④ ₩2,59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차·대변 배치 오류를 고친 차변 합계는 2,050원이다. 재고자산을 직접 줄이지 않고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므로 평가손실 190원과 **6개월분 이자비용 10원**이 차변에 추가되어 수정후 차변 합계는 2,25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시산표의 차·대변 배치 오류 수정: 계정잔액 자체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금액을 바꾸지 않고 **각 계정의 정상 잔액 방향**에 맞게 옮긴다. 차변에 잘못 표시된 매출 300원, 선수수익 50원, 매입채무 50원은 대변으로 옮긴다. 매출은 수익, 선수수익과 매입채무는 부채이므로 대변 잔액이다. 대변에 잘못 표시된 선급보험료 50원과 미수수익 10원은 아직 비용으로 소멸하지 않은 권리와 앞으로 받을 수익에 대한 권리인 자산이므로 차변으로 옮긴다. 나머지 계정의 위치는 맞다. 차변에서 빠지는 금액은 300 + 50 + 50 = 400원이고, 차변에 더해지는 금액은 50 + 10 = 60원이다. 따라서 오류 수정 후 차변 합계는 2,390 − 400 + 60 = 2,050원이다. 대변도 1,710 + 400 − 60 = 2,050원으로 일치한다.

2. 재고자산 저가평가: 재고자산 장부금액 200원이 순실현가치 10원보다 크므로 평가손실은 200 − 10 = 190원이다. 차변에 재고자산평가손실 190원, 대변에 재고자산평가충당금 190원을 기록한다. 문제에서 **평가충당금 계정을 사용**한다고 했으므로 재고자산 계정의 차변 잔액 200원은 그대로 두고, 자산을 차감하는 충당금 190원을 대변에 별도로 표시한다. 재고자산의 순장부금액은 10원이 되지만, 시산표 차변 합계에는 평가손실 190원이 추가된다.

3. 차입금 이자 발생액 반영: 차입원금은 500원이고 연 이자율은 4%이다. 20×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계산하면 $500 \times 4\% \times \frac{6}{12} = 10$원이다.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해야 하므로 차변에 이자비용 10원, 대변에 미지급이자 10원을 기록한다. 따라서 차변 합계가 10원 증가한다.

4. 수정후시산표 차변 합계: 오류 수정 후 합계에 재고자산평가손실과 이자비용을 더하면 2,050 + 190 + 10 = 2,250원이다. 이는 ③의 2,250원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6. 고객과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서 거래가격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참고한다.

② 기업에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 '기댓값'은 변동대가(금액)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③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 변동금액 또는 둘 다를 포함할 수 있다.

④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비현금대가의 공정가치가 대가의 형태 외에 기업의 성과 등 다른 이유로 변동하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④의 '적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잘못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거래가격은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다. 이를 산정할 때는 **계약 조건과 기업의 사업 관행**을 함께 고려한다. 예를 들어 관행적으로 가격을 할인해 주었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② O: 기댓값은 발생 가능한 여러 대가 금액에 각각의 발생확률을 곱하여 합한 금액이다.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에는 여러 계약의 결과를 확률로 반영하는 기댓값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다만 기업이 받을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이런 경우에 기댓값을 반드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③ O: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는 **고정금액과 변동금액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기본 보수에 성과 달성 여부에 따른 추가 보너스를 약정하면, 기본 보수는 고정대가이고 추가 보너스는 변동대가이다.

④ X: 비현금대가는 현금 대신 주식이나 재화 등으로 받는 대가이며,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받을 주식의 주가 변동처럼 대가의 형태 때문에 공정가치가 변하는 경우와, 기업의 성과 등 다른 이유로 변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대가의 형태만이 아닌 이유로 변동한다면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규정을 적용한다**. 즉, 관련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려 줄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NoteBase

문 17.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제시된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한다.

②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③ 정보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은 정보를 이해가능하게 한다.

④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에 이용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표현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함을 뜻하지 않는다**. 추정치라도 적절한 추정 절차를 오류 없이 적용하고 추정치의 성격과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표현충실성은 경제적 현상을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오류가 없다'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상을 설명하면서 오류나 누락이 없고, 정보를 산출하는 절차를 오류 없이 선택·적용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자산가치를 추정할 때, 추정치임을 명시하고 추정 방법의 성격과 한계를 설명하며 적절한 추정 절차를 오류 없이 적용하면 충실한 표현이 될 수 있다. 추정금액 자체의 완벽한 정확성까지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O: 검증가능성은 정보가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성이다. 지식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들이 특정 표현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있음**을 뜻하며, 완전한 의견 일치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현금을 직접 세거나 계산에 사용한 자료와 방법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수 있다.

③ O: 이해가능성은 이용자가 정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특성이다. 정보를 적절히 분류하고 그 특징을 나타내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하면, 이용자가 정보의 내용과 관계를 파악하기 쉬워진다.

④ O: 적시성은 정보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점에 이용 가능**한 특성이다. 내용이 유용하더라도 의사결정이 끝난 뒤에야 제공되면 그 결정에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정보 제공의 시점이 중요하다.

NoteBase

문 18. (주)한국의 20×1년 초 자본잉여금은 ₩1,000,000이다. 당기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발생하였을 때, 20×1년 말 자본잉여금은? (단, 다음 거래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계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한다)

◯ 2월에 1주당 액면금액이 ₩2,000인 보통주 500주를 1주당 ₩3,000에 발행하였다.
◯ 3월에 주주총회에서 총액 ₩200,000의 배당을 결의하였다.
◯ 4월에 자기주식 100주를 1주당 ₩2,500에 취득하였다.
◯ 3월에 결의한 배당금을 4월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4월에 취득한 자기주식 40주를 9월에 1주당 ₩4,000에 처분하였다.

① ₩1,000,000
② ₩1,110,000
③ ₩1,510,000
④ ₩1,56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본잉여금은 신주 발행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50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원**만큼 증가한다.
배당과 자기주식 취득은 자본잉여금을 변동시키지 않으므로, 기초 1,000,000원에 두 증가액을 더한 기말 금액은 1,5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2월 보통주 발행: 주식 발행금액 중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자본금으로,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본잉여금인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자본잉여금 증가액은 (3,000 − 2,000) × 500주 = 500,000원이다.

3월 배당 결의와 4월 배당금 지급: 배당을 결의하면 이익잉여금이 200,000원 감소하고 미지급배당금이 같은 금액만큼 증가한다. 이후 현금으로 지급하면 미지급배당금과 현금이 각각 200,000원 감소한다. 두 거래 모두 자본잉여금에는 영향이 없다.

4월 자기주식 취득: 원가법에서는 취득대금 2,500 × 100주 = 250,000원을 자기주식으로 기록한다. 자기주식은 **자본조정으로 자본에서 차감**하므로, 취득할 때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9월 자기주식 처분: 원가법에서는 처분한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을 취득원가로 제거한다. 40주의 장부금액은 2,500 × 40주 = 100,000원이고, 처분대금은 4,000 × 40주 = 160,000원이다. 차액 160,000 − 100,000 = 60,000원은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인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한다.

기말 자본잉여금: 기초 잔액에 주식발행초과금과 자기주식처분이익을 더하면 1,000,000 + 500,000 + 60,000 = 1,560,000원이다. 이는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도 포함된다.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③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④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기초로 하여 계상한다.

정답 1, 2, 4번

①

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재정운영표·순자산변동표 외에 **현금흐름표도 포함**되며, 주석 역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재무제표)
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개정 2024.7.31>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 · 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7.31>

③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이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NoteBase

④

재정상태표의 자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를 기초로 계상**한다. 무주부동산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기부채납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는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計上)한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NoteBase

문 20. (주)한국의 현재 유동자산은 ₩100, 유동부채는 ₩200이다. 다음 거래가 (주)한국의 유동비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를 ₩30에 취득하면서 취득 대금 중 ₩1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2년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는 유동비율을 감소시킨다.

② 재고자산을 현금 ₩10에 구입한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단기차입금을 현금 ₩20으로 상환한 거래는 유동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 ₩30을 수령한 거래는 유동비율을 증가시킨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단기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현재 유동비율이 **100% 미만**이므로 이 거래 후 유동비율은 50%에서 약 44.44%로 감소한다.

선지별 해설

유동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이다. 각 거래는 주어진 현재 금액에 독립적으로 적용하며, 거래 전 유동비율은 $\frac{100}{200} \times 100\% = 50\%$이다.

① O: 토지는 비유동자산이고, 2년 후 지급할 나머지 ₩20은 비유동부채이다. 따라서 **현금 지급액 ₩10만큼 유동자산만 감소**하여 유동자산은 ₩90, 유동부채는 ₩200이 된다. 유동비율은 $\frac{90}{200} \times 100\% = 45\%$로 감소한다.

② O: 현금 ₩10이 감소하는 대신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이 ₩10 증가한다. 이는 **유동자산 내부의 구성만 바뀌는** 거래이므로 유동자산 총액 ₩100과 유동부채 ₩200은 그대로이다. 유동비율도 50%로 변하지 않는다.

③ X: 단기차입금을 현금 ₩20으로 상환하면 유동자산은 ₩80, 유동부채는 ₩180이 된다. 유동비율은 $\frac{80}{180} \times 100\% \approx 44.44\%$로, 50%보다 낮아진다.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도 비율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유동자산은 기존 금액의 20%, 유동부채는 10% 감소하므로 분자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든다. 따라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동비율이 감소한다**.

④ O: 사채의 만기가 3년이므로 발행으로 늘어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따라서 **현금 수령액 ₩30만큼 유동자산만 증가**하여 유동자산은 ₩130, 유동부채는 ₩200이 된다. 유동비율은 $\frac{130}{200} \times 100\% = 65\%$로 증가한다.

NoteBase